

추석민심 잡아라

긴 연휴 여야 대치정국속 총력전 나서
안철수 행보 가속·지방선거 기선잡기

어느 해보다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치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역대 어느 추석보다 많은 출향인들이 고향을 찾을 것으로 보여 여야 모두 추석민심을 잡기 위한 사전 포석을 하느라 신경전까지 치열한 것이다.

〈관련기사 3면〉

15일 정치권은 이번 추석 밤상에 오를 이슈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국정원 개혁, 그리고 이를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태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와 혼외 자식 논란 ▲내년 지방선거 전망과 '안철수 신당'의 활약 여부 등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하는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이 전단에는 ▲정부 세제개편안 비판 ▲경제민주화 후퇴 비판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민주당은 또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외 이직 문제를 문제 삼아 정권의 '검찰 흔들기'를 집중 부각, 민주당의 대한 여론을 환기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담 결과를 놓고도 여야는 상이한 관점에서 홍보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박 대통령의 소통 노력을 홍보하면서 야당의 장외투쟁을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은 회담 성과에 상관없이 국정원 개혁에 대한 현 정부의 무관심과 검찰에 대한 정권의 압력을 비판한다는 각오다.



전통시장 "오늘만 같아라"

15일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에 올릴 생선과 과일 등을 사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광주 남광주시장으로 몰려들어 주차장 일대에 자리잡은 노점상들도 모처럼 '대목 장사'에 합박웃음을 지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늘 3자 회담

차대통령-여야 대표...채동욱 사퇴 겹쳐 성과 미지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예정대로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5일 '혼외 아들' 의혹 논란에 휩싸인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외 이직과 관련해 회담을 거둬들이기 위해 10개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추석 연휴가 초반 기선을 잡는 분수령으로 보고 지역 곳곳을 돌며 열정을 알리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경쟁 체제 속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돼 입지자들의 발걸음은 어느 명절 보다 바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알려져,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부분적인 합의 도출마저도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내일 회담의 주요 의제는 국정원 등 기관의 정치개입 폐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총장 사퇴 문제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며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대통령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과 검찰 일각에서 제기하는 채 총장 사외 이직에 대한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하며 회담에서 답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진실이 규명되면 깨끗이 해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사안을 의도적 프레임으로 몰아가서 청와대에 책임을 묻고 이런저런 의혹을 제기하는 등 본질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공직사회를 혼드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배후설을 일축한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北에 태극기 휘날리고 애국가 울려 퍼졌다

남북 분단 이후 처음
평양 스포츠클럽 역도대회
남한 주니어 4명 메달



남북 분단후 처음으로 북한 평양에서 태극기가 휘날리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장면이 연출됐다.

"2013 아시안컵 및 아시아 클럽대항 역도선수권대회"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의 19세 이하 주니어 선수 4명이 모두 메달을 따내고 평양에 태극기를 드높였다.

김우식(수원시청)과 이영균(고양시청)이 지난 14일 북한 평양 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2013 아시안컵 및 아시아 클럽 역도선수권대회 남자 주니어 85kg급 경기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해 시상식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며 두 개의 태극기가 나란히 게양됐다.

김우식(19·수원시청)과 이영균(19·고양시청)은 지난 14일 평양 류경 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주니어 남자 85kg급 경기에서 다른 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나눠 가져다. 시상식이 진행되며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북한 관중은 모두 기립해서 이를 지켜보았다. <관련기사 15면〉

이재광(19·고양시청)은 같은 날 주니어 남자 94kg급 합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권예빈(19·

수원시청)은 13일 주니어 여자 69kg급 합계에서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한국 선수단은 주니어 선수들의 활약으로 함께 종목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수확했다. 대한 역도연맹은 이번 대회에 광주은행과 보성군청 역도팀 등 성인 18명, 주니어 4명으로 선수단을 꾸렸다. 한편 제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3일 '올림픽 통일팀의 꿈'이라는 제목의 시론에서 남북한이 2020년 도쿄올림픽에 단일팀으로 참가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송기용기자 song@

신성자동차㈜
www.gj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전시장
The C-Class 36개월 무이자+주유비 지원 100만원
문의: 062)226-0001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KAN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LIRIKOS

고농축 수분으로 힘있게 살아나는 수분피부
리리코스 마린 하이드로 앰플 EX

리리코스 마린 하이드로 앰플은 작습니다. 605m 깊은 바다가 응축하고 응축하여 만든 심층수를 그대로 담아낸 수분 앰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크지 않아도 피부가 아무리 건조해도, 촉촉함이 힘있게 살아납니다. 이제 작지만 강한 바다 수분 앰플을 만나보세요.

촉촉한 5ml의 바다

지구의 70%나 차지하는, 그러나 쉽게 다가갈 수 없기에 더욱 신비로운 바다- 그 속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생명력이 가득합니다. 모두 어렵다는 이유로 육지만을 주목할 때 리리코스는 끊임없이 비약속 새로운 발견을 향해 도전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양 심층수에서 수분의 비밀을 찾았습니다. 유해물질이 실기 어려운 온도 2℃의 순수한 생명력, 수백년간 다른 해수와는 거의 섞이지 않은 고유수의 생명력, 그리고 605m 바닷속 높은 압력에 응축되고 응축된 진하고 강한 생명력까지- 리리코스는 이런 순수한 심층수를 5ml 작은 앰플에 담았습니다

리리코스는 뷰티어 및 주요 백화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입 문의: (9)01502000(평) 고객 상담실 080-023-5454 www.lirikos.co.kr